

보도시점 4.23.(목) 조간 &lt; 4.22.(수) 12:00 &gt;

##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기업은 누구? 올해의 K-스타트업 AI리그 출범

-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올해의 K-스타트업 AI리그’ 신설, 상위 10개 기업은 통합 본선 진출, 최종 우승 시 5억원 상금 수여
- 분야 제한 없는 ‘혁신창업리그’도 동시(4.22~5.20) 모집  
유망 초기 창업기업 발굴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에 ‘인공지능(AI) 리그’를 신설하고,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K-스타트업」은 9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생태계 대표 플랫폼이다. 그동안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라이온로보틱스 등 혁신기업을 배출하며 ‘K-스타트업(창업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중기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기후부, 성평등부, 지재처, 방사청

올해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해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분리·운영하고, 본 대회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 경진대회로 재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대회는 지난 3월 9개 부처 12개 리그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재 9개 리그\*는 참가자 모집 등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3개 리그\*\*도 4~5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참가자 모집 중) AI리그, 혁신창업리그, 연구자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기후에너지환경리그  
(모집 완료) 관광리그, 콘텐츠리그, 여성리그

\*\* (모집 예정) 스포츠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부처별 리그를 통해 선발된 130개팀은 통합 본선에 진출하며,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20개의 초기 창업기업은 오는 12월 왕중왕전에 올라 최종 경쟁을 펼치게 된다. 왕중왕전 수상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리그를 새롭게 신설한다.

인공지능(AI)리그는 인공지능(AI) 분야 품목을 보유한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로, 예선을 통해 선발된 상위 10개 기업은 각 리그별 우수기업들과 함께 ‘올해의 K-스타트업’ 통합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한편, 분야 제한 없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혁신창업리그’도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혁신창업리그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각 센터별 지역예선에서 총 66개 기업을 선발한 뒤, 종합예선을 통해 통합 본선에 진출할 최종 22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리그’ 또는 ‘혁신창업리그’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AI)리그 신설을 계기로, 「올해의 K-스타트업」을 통해 성장한 뽀뿌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혁신 인공지능(AI) 기업의 성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64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지홍진 (044-204-7645) 최서연 (044-204-7652)